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January 2014 vol.106

1

## 이달의 이슈

-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재조명과 발전과제
- 이임자
- 의류제조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 김왕시

## 생생리포트

「동대문 패션자원센터」사업추진 방향

김성주

## 인포그래픽스

서울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가장 크게 느끼는 요인은?

서울경제분석센터

##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 부록

통계표

## 서울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가장 크게 느끼는 요인은?

‘동종 업체 과다’가 55.3%로 전체 경쟁 요인 중 가장 큰 부담 차지

경쟁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업종



건설업  
75.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5.6%



제조업  
71.0%



기타 업종<sup>2)</sup>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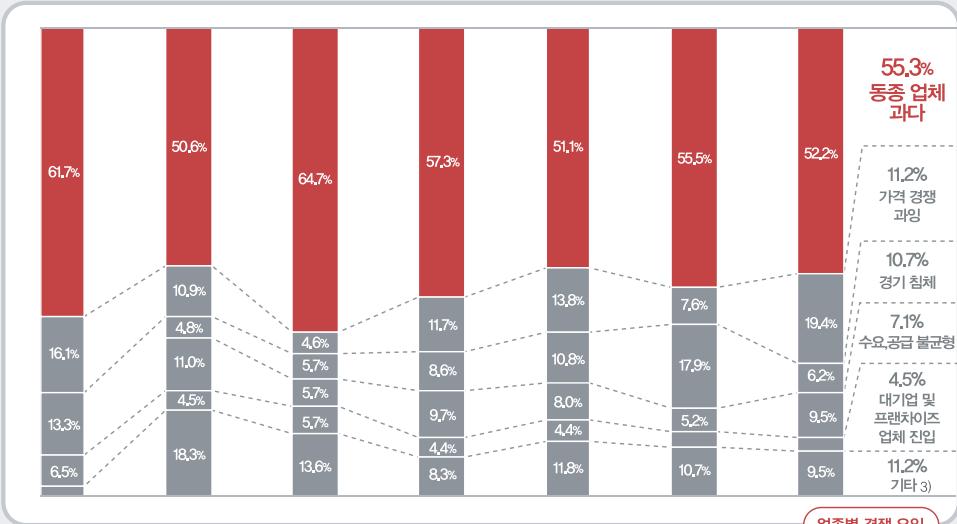
도매 및 소매업  
69.2%



숙박 및 음식점업  
68.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6.1%



# 서울경제

2014 vol.106

1

## 이달의 이슈

3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재조명과 발전과제

이임자(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11 의류제조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김왕시(한국의류산업협회 산업진흥팀장)

## 생생리포트

21 「동대문 패션지원센터」 사업추진 방향

김성주(서울디자인재단 패션 봉제육성팀)

## 인포그래픽스

29 서울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가장 크게  
느끼는 요인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경제동향

35 요 약

37 생 산

39 소 비

40 고 용

43 물 가

44 부동산

46 금 융

54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재조명과 발전과제



이임자\*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ijrhee@kiet.re.kr

### 1.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최근 동향

지난 한 해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은 혹독한 경기 불황 한파를 겪으며 지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난 후 잠시 숨 고를 틈도 없이 비집고 온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섬유·패션의류업체는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시련을 피하지 못했다.

이는 주요 생산관련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전년비 생산지수는 -4.9%로 2012년의 -2.4%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출하지수 역시 감소한 반면,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체증으로 재고지수는 전년비 7.1% 높아져 업황부진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산지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위축을 꼽을 수 있다. 섬유 내수는 유로존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로 전년에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수료  
. 현)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 소재·생활친화산업팀 부연구위원  
. 디자인 등을 활용한 생활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2013), 미국, 일본, EU의 섬유수입 동향 및 전망(2013), KIET 산업경제 전망(2013), 주요부품소재산업의 한미 FTA 활용방안 연구(2012), 섬유산업 목표관리 제 이행전략 및 정책과제(2012)

이어 지속적인 역신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의류 소비 위축으로 봉제의류 생산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의류 생산용 원자 및 직·편물 생산의 연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섬유업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 밖에 지난 4월초 시작된 개성공단 조업 중단, 5월 이후 전력난 위기에 따른 화섬업체의 감산 단행 등이 생산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기지표 개선,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원면 등 원자재가 상승을 반영한 섬유원료 가격 상승, 환율변동 등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수출은 글로벌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 2.1% 감소에서 2013년에는 2.3%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대선진권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개도국 수출이 크게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에 이어 제2의 의류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대베트남 수출이 20% 가까이 성장하며 수출 확대를 견인한 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0.2% 성장으로 보합세를 보여 대개도국 수출이 3.1% 성장하였다. 반면 선진권 수출은 대EU 수출(6.7%)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대미 (0.4%), 대일(-2.9%) 수출은 다소 부진하여 전년비 0.4% 성장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의류의 대개도국 수출(18.4%)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비 11.4%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류에 따른 국산 브랜드 선호 및 의류 소비 증가에 기인한다. 섬유 수입은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여력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지지 못해 중저가품 중심의 불횡형 소비가 확대되어 수입 역시 중저가 의류 등 범용제품의 대개도국 수입(15.6%)이 급격히 확대된 반면, 고가의 대선진권 수입 (0.1%)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내수부진에 따른 저가 소비 확대로 중저가 의류 완제품 (20.5%) 역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 1]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주요 동향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구 분	2012	2013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4	-4.9	-5.5	-2.7	-5.5	-5.6	16.2	-11.0	-8.2
	생산(전기비)	-	-	-4.2	-3.7	-4.9	-9.4	-2.5	-9.9	-6.6
	출하	-1.2	-3.8	-2.3	-2.3	-5.4	-5.0	14.5	-9.9	-5.9
	재고	-2.5	7.1	-3.5	1.8	6.6	7.1	3.6	0.0	-0.4
교역	가동률	-2.8	-0.6	4.6	11.6	-5.0	4.9	15.0	-6.4	-2.2
	수출	-2.1	2.3	0.1	4.1	-3.0	8.1	16.6	0.6	7.7
동향	수입	-5.1	12.7	4.6	10.3	14.2	20.4	21.3	17.6	22.5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1) 11월,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 섬유산업은 섬유, 의복, 화학섬유 기준임.

이상과 같은 최근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실적 변화는 단기적인 경기변동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과 더불어 서울의 섬유·패션의류산업 현황 및 위상변화에 대해 고려하고자 한다.

## 2.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구조 변화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이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2000년대 초반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 경기 요인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액 역시 국내 생산과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이와 같은 회복세가 그간의 부진을 딛고 재도약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경쟁력을 높여가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우리의 섬유·패션의류산업은 양적 성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해외 생산기지 이전 확대와 국내 생산기반의 약화가 지속되면서 물량 기준 생산규모는 지속 감소하여 국내 산업 위상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수출 증가율이 국내 생산 증가율보다 낮아 생산수출간 실적 격차가 확대되었고, 섬유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져 과거 수출 중심의 산업에서 내수산업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섬유·패션의류산업 위상 변화

구 분	업체수 (천개)		고 용 (천명)		생산액 (조원)		부가가치 (조원)		수 출 (억불)	
	2000	2012	2000	2012	2000	2012	2000	2012	2000	2013
제조업	313	360	3,333	3,715	534	1,511	205	480	1,723	5,596
섬유국	52.1 (16.6)	44.9 (12.5)	485.5 (14.6)	301.9 (8.1)	36.7 (6.9)	44.9 (3.0)	15.6 (7.6)	16.5 (3.4)	188 (10.9)	160 (2.9)
패션울	20.7 (39.7)	18.8 (41.8)	157.4 (32.4)	109.2 (36.2)	7.9 (21.6)	15.6 (34.8)	3.2 (20.4)	6.8 (41.5)	11.7 (62.4)	7.1 (44.6)

출처: 업체수 및 고용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1인 이상), 생산액 및 부가가치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10인 이상), 수출은 한국무역협회.

주: 전국의 ( )안은 전국 제조업 대비 비중, 서울의 ( )안은 전국 섬유패션의류대비 서울의 비중임.

그러나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의 차별화 전략에 따라 국내 섬유산업의 핵심적 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 일부 긍정적 성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에서는 섬유산업의 현황에 대해 부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은 지속적인 인건비 및 생산비의 증가와 생산설비의 과잉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하여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양적 확대 대신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고부가제품 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 섬유·패션의류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성장동력은 산업용섬유와 패션의류이다. 산업용 섬유는 산업자재의 경량화 고기능화, 다양화 추세에 따른 용도의 확대 및 수요 증가로 지난 10년간 생산비중이 약 10%에서 20% 정도로 높아졌다. 의류는 중국 등 저가 의류의 수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내수 패션브랜드의류를 중심으로 패션화고급화하면서 점차 생산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둘째, 투자 고도화 및 생산의 국제분업 가속화를 들 수 있다.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투자전략은 봉제의류 등 노동집약적 범용제품은 가격경쟁력 개선을 목표로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하는 반면, 국내 투자는 화학섬유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고도화하면서 고부가 제품의 국내생산, 저부가제품의 해외생산 확대로 국제분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설비투자는 과거 설비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2009년 이후에는 화학섬유 업체를 중심으로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등 고부가가치 차별화제품 개발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봉제의 복 부문의 설비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저렴한 인건비 활용을 목적으로 한 봉제의류 생산기지 이전이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한 후, 1990년대에는 현지 봉제의류 생산을 위한 원자 및 직물 등 섬유소재 이전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봉제의류와 섬유소재 모두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에는 연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2012~2013년 다소 주춤하였던 해외직접투자는 금년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투자전략 고도화는 국내 수출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80년대 후반 이후 봉제 중심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국내 섬유 수출은 과거 봉제의류에서 해외 생산용 직물 수출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내적으로 국내 생산 봉제의류가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열세로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시장을 잠식당하자 생산비용 절감형 해외투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투자전략에 기인한다. 또한 2011년 이후 섬유 수출의 회복세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동남아로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진출업체의 수출의류용 섬유소재의 조달 확대

에 기인한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노동력 확보 애로 등 생산여건이 급격히 어려지면서 국내 섬유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생산비가 더욱 저렴한 동남아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섬유 수출은 직물 수출비중이 점차 높아져 2013년 전체 수출의 58.7%를 차지하는 반면, 현지 생산된 중저가 의류의 역수입 확대로 의류가 전체 수입의 53.8%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산업용 섬유소재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라 IT, BT, NT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발전 가속화로 고성능 산업용섬유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다가오는 몇 년간은 금년부터 본격 생산되기 시작하는 탄소섬유 생산과 더불어 자동차, 항공기, 조선 등 수송기기 초경량화의 부품소재로 활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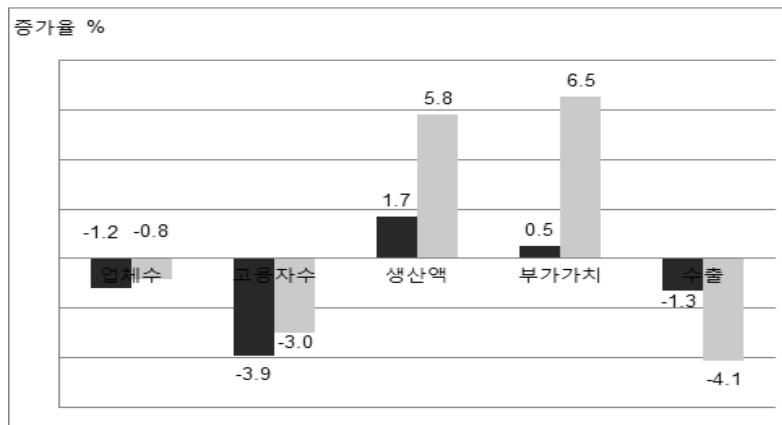
### 3. 서울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위상 및 구조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대내외 여건, 생존을 위한 생산 및 투자 전략 등이 유기적인 관계들을 형성하며 섬유·패션의류업체의 성과와 산업구조가 결정되어 왔다. 그 속에서 서울은 거대한 유통시장과 인구 등을 기반으로 섬유소재보다는 패션의류 부문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중 서울소재 비중은 사업체수가 41.8%, 종사자수가 36.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점차 서울 집중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노동집약도가 높은 봉제의류 생산업체가 서울에 가장 밀집되어 있기 때문인데, 서울소재 섬유·패션의류업체의 74.8%, 종사자수의 85.9%가 봉제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상황속에 서울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비중은 점차 확대되며 서울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 성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의 높은 봉제 경쟁력은 경기북부의 고품질의 편직물 및 염색업체, 반월·시화포천 등의 염색업체 등 배후의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성과면에서 보면 서울지역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감소폭이 적고,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증가율은 정국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수출 성장률은 2000년 대비 봉제의류 수출 감소와 더불어 서울의 수출 감소폭이 월등히 높다. 이는 국내 수출 품목 구조가 과거 봉제의류에서 직물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 결과 서울시의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수출비중은 2000년 62.4%에서 2013년 44.36%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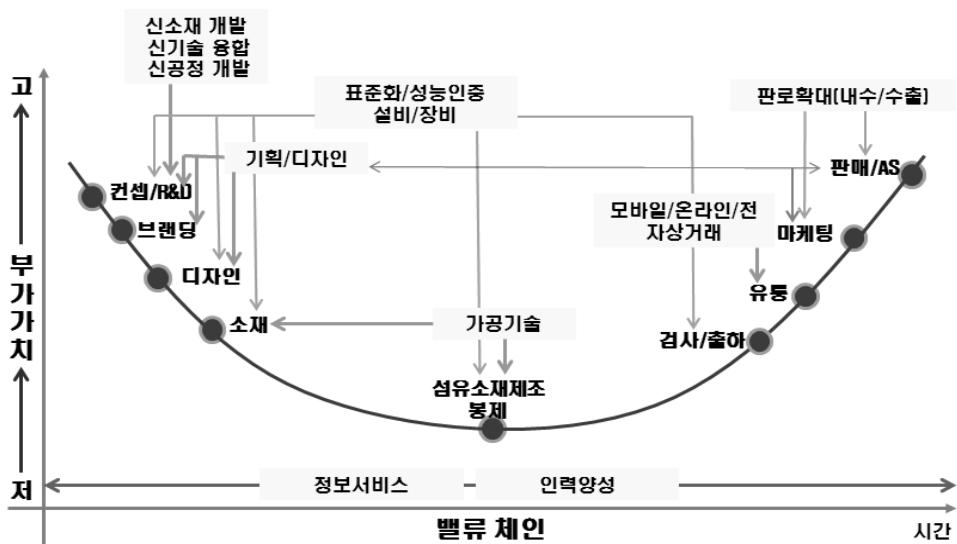
[그림 1] 전국 및 서울 섬유·패션의류업체 성장을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우리나라 최대 패션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시는 패션산업 관련 많은 인프라 갖추고 있으며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정책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패션의류를 포함한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하여 디자이너의 패션쇼 및 수주 전시 등 패션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대문 상권의 영세 브랜드업체와 봉제업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관련 인프라로는 서울통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패션디자인센터, 동대문 서울패션센터, 동대문 패션창작 스튜디오, 동대문 패션지원센터 등이 있다. 그 외에 섬유·패션의류산업 관련 유관기관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 등 다양한 협회가 있다. 더구나 2012년 이후 서울에서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동대문의류봉제협회, 강북봉제지원센터 등 관련단체와 조합이 활발하게 창립되면서 봉제산업의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중이다.

## 4.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발전과제

현 정부의 5대 국정과제 중 산업경제와 관련하여 중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여성, 창조경제, 생태계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으로 섬유·패션의류산업을 꼽을 수 있겠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 R&D, 기획, 디자인, 유통, 마케팅 등 분야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 기술발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이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입증한다.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99%의 중소 섬유·패션의류업체와 높은 여성 고용비중(전국 기준 51.4%, 봉제업체 기준으로는 64.8%)은 “고용률 70%” 달성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료, 소재, 부품, 제조, 유통의 다단계적 생산구조를 가진 섬유·패션의류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경쟁력 제고의 관건이다.



[그림 2]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밸류체인과 정책방향

이제 우리는 정부의 국정목표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경쟁력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서울에 역량이 집중된 의류에 집중하여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패션의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자인, 신소재개발, 기획 등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최종 제품과 연계한 기획, 소재개발 등 R&D, 디자인, 판로 개척 등

일관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유통 및 마케팅 관련해서는 모바일 플랫폼 개발 지원 및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온라인 쇼핑몰 및 모바일 거래 실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출 확대까지 가능해지면서 중소업체의 온라인 및 모바일 패션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모바일,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는 한류를 활용한 홍보, 플랫폼 개발, 제품 촬영 및 상품 정보 등 서비스, 제품력 등을 갖춘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류의 수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의 주요 자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의류 제조 및 유통이다. 최근의 동향에 의하면 주력 수출품목이 대개도국행 섬유직물이 대세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의류 제품의 수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한류와 FTA이다. 2012년 불황에도 불구하고 K-POP 주도의 한류열풍으로 중국, 일본 등 외국인의 백화점, 동대문, 명동 등지의 화장품 및 의류쇼핑매출이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경기위축에 따른 소폭의 감소세가 예상되나, 경기회복과 더불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외국관광객이 전년비 3배 증가한 가운데, 의류 구매 비중이 중국인은 60.7%, 일본인은 55.8%에 달한다. 따라서 이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한류마케팅 및 콘텐츠 개발 지원 필요하다.

셋째, 기체결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봉제 생산기반 활성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미 또는 한-EU FTA가 논의될 당시 봉제의류가 가장 큰 수혜업종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 등 중저가 범용의류와의 경쟁력 열세로 국내시장은 물론 주력 수출시장 모두 잠식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봉제 생산기반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약화되어 20~30%대의 고관세 철폐 및 단계적 인하 혜택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생산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는 중국산 저가 섬유의류 유입 급증으로 국내 섬유생산 기반을 더욱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산 직물 및 의류품목의 양허제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넷째,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생산 및 투자 전략의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동남아로의 생산비절감형 투자가 향후 동남아에서 생산비 우위가 약화된다면 그 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또 다른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찾아야 할 시점이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된다.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장기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 및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취업 알선 강화가 필요하다. 직장내에서 비정규직 및 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이 높은 점은 향후 여성인력의 고용 안정화 및 복지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젊은 여성 임력 유입을 위해 봉제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탁아소 등 육아 인프라의 정비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가사 또는 육아를 위해 일선을 떠났던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섬유관련 전문가 직능교육을 시행하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예로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북부 니트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교육수료 후 섬유기업 취업 연계하여 도민의 취업확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의류제조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김왕시\*

한국의류산업협회 산업진흥팀장

k0w0s0@naver.com

### 1. 의류제조업 실태조사의 배경 및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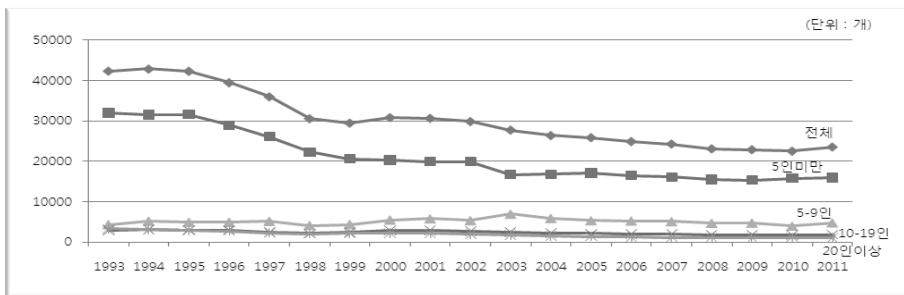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의류제조업이란 각종 직물, 편조원단, 가죽 등을 재단·재봉·가공하여 봉제의복, 편조의복,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양말, 모자, 장갑, 머플러 등 의복 액세서리 제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흔히 말하는 ‘봉제업’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는데 과거 70~80년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역군이자 효자산업으로 동대문(청계천) 평화시장 등에서 근로자들의 웃음과 울음이 교차했던 산업이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정책도 경공업에서 중공업,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틀고 자유무역에 따른 저임금국가에서의 의류수입 증대에 따라 국내 의류제조업은 만성적인 일감부족과 영세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993년도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현)한국의류산업협회 산업진흥팀장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섬유패션활성화 기반마련사업’의 일환으로 ‘의류제조 역량강화사업’을 국고위탁받아 의류봉제업 기반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과제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실리는 내용은 2013년도에 실시한 ‘전국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결과보고의 주된 내용을 인용, 정리하고 동대문 중심의 패션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한 의류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 것임

에 42,000여개였던 의류제조업체수가 97년도에는 36,000여개, 2007년도에 24,000여개로 줄어들었고 종사자수도 1993년도 386,000여명에서 97년도 238,000여명, 2007년도 152,000여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1] 의류제조업 규모별 사업체 수 변화추이(93년~2011년)

이렇듯 쇠락해 가는 의류제조업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의 제1목표로 삼은 현정부에서 왜 새롭게 조명받고 있고 정계와 정부의 관심이 증폭되었을까? 그것은 이 업종이 우리나라 의류패션산업의 근간이자 중요한 제조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내 의류제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정책개발의 방향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작년에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 2.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의류제조업 실태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등 4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국 5,380개 업체에 대한 정책설문조사와 1,135명에 대한 종사자설문조사, 그리고 전국 의류제조 집적지 153개동에 대한 실점(카운팅)조사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집적지란 한 개 동에 50개 이상의 의류제조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추정된 전국 의류제조업체수는 전국에 21,319개이며 종사자수는 약 152,000명이었다.(여기서 말하는 종사자수는 순수 의류제조공장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며, 현장에서 흔히 ‘객공’이라 칭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디자이너, 전통한복 제조업 종사자 등을 제외). 이 중 서울에만 13,753개 업체로 무려 64.5%가 밀집되어 있으며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수 2,026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 74%가 밀집되어 있어 의류제조업은 대표적인 도시형 제조업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의류제조업 실태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표자 평균연령이 52.6세, 사업 자동록률이 56.7%에 불과하여 성정여건이 미흡하고, 사업장 임차비율은 무려 89.7%, 임가공비만을 받는 단순 주문생산방식(OEM생산방식) 비율이 85.5%로 투자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업체 당 근로자수는 평균 5.8명인데 대부분 주부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종사자가 60%를 상회하여 젊은층의 신규인력 유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봉제 비숙련공의 월평균 급여가 130만원, 숙련공의 경우에도 170~190 만원을 넘지 않는 낮은 임금과 상시적인 야간/주말근무 등 근무조건의 열악함, 그 러함에도 기술자 평균 숙련기간은 5.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숙련기술자 양성에는 긴 시간이 걸리나 급여나 근로조건은 열악하기 때문에 의류 제조 인력수급상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패션사업의 중장기 인프라구축에 있어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의류제조업 평균 매출액은 365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소공인(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전체 평균 매출액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매출액 중 영업 이익률은 13.8%이며, 비용측면에서 보면 노동집약적인 산업답게 인건비 지출이 40~50%에 이른다. 이렇듯 인건비 지출항목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더발주업체로부터 받는 임가공비는 10~20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으며, 특히 의류제조업체들의 평균 납품처가 2.7개이지만 주 납품처(1대 납품처) 의존률이 76.9%에 이르는 현실에서 적정수준의 임가공비 협상은 그저 제조업체들의 꿈일 뿐인 경우가 많다.

근로자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취업은 지인소개 및 스스로의 구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직시 애로사항은 낮은임금이다. 현 사업장 근무기간은 약 5년, 의류 제조업체 총 경력은 19년으로 대단히 길다. 평균 근무일수는 성수기에 약 23일, 비수기에 약 17일이며 일평균 근무시간은 성수기 기준 10시간이다.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166만원으로 본인들의 희망임금과는 약 45만원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걸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향후 9년 정도 이 직종에 계속 근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0세이고 대부분 과거 우리나라가 의류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70~80년대에 기술을 숙련했던 사람들이다. 현재 대부분 자녀를 성장시켜 사회로 떠나보내고 현재 및 노후를 대비하여 밥벌이를 하는 정도의 근무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 셈(카운팅)조사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누락된 업체수까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 의류제조 집적지 153개동을 선정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종사인원과 주요 생산품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의류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서울 시를 주요 타겟으로 삼아 서울시 19개구 111개동에 대한 실 셈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지역과 이 지역에서 파악된 업체수, 종사자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 셈조사지역 및 업체수/종사자수

구분	지역구	동	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동북부 지역	종로구	면목(본, 2, 3~8, 4, 5, 7), 중화(1, 2), 망우(본, 3), 상봉(1, 2), 묵(1, 2), 신내1	1,362	7,703
	성북구	장위(1, 2, 3), 월곡(1, 2), 종암, 석관, 길음2 정릉(1, 2, 4), 보문, 안암, 삼선, 동선, 성북	1,270	6,111
	종로구	창신(1, 2, 3), 숭인(1, 2), 종로(1~4가, 5~6가), 이화	1,640	5,219
	중구	신당(1, 2, 4, 5, 6), 명, 회현, 광희, 종림, 을지로	1,211	5,616
	동대문구	장안(1, 2), 담십리(1, 2), 용신, 전농1	940	4,870
	성동구	왕십리(도선 2), 성수2가(1, 3), 미장동, 용답동, 금호(1가, 2~3가)	676	3,888
	광진구	중곡(1, 2, 3, 4), 군자, 자양4, 구의2	490	2,824
	강북구	수유(1, 2, 3), 송천, 삼양, 미아, 송중, 인수, 번1	684	2,927
	도봉구	방학(1, 2), 창2, 도봉1, 쌍문2	358	1,751
서남부 지역	노원구	공릉1	62	486
	강동구	길, 암사1, 천호2, 성내(1, 2)	101	789
	금천구	독산(1, 2, 3, 4), 가산, 시흥1	759	7,464
	구로구	구로(2, 3)	114	1,716
	관악구	조원, 신사, 미성, 은천	287	1,864
중부 지역	영등포구	대림3	95	716
	양천구	신월(1, 3, 5, 7), 신정4	113	1,073
	용산구	청파	265	797
마포구	마포구	공덕	181	535
	서대문구	북아현	68	247

실 셈조사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보면, 통계청 2011년 전국사업체조사와 비교시 폐업률은 9.75%로 조사되었으며 주요생산품목은 케주얼웨어 제조업체가 3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성정장 25.0%, 유아동복/가죽의류/내의류 등 기타의류 제조업체가 7.4%, 양말/모자/장갑/머플러 등 의류액세서리 제조업체가 3.3%, 남성정장 제조업체가 3.2%, 레저스포츠웨어가 2.3%, 유니폼류 제조업체가 1.2% 순으로 조사되었다.

케주얼웨어 중 니트(다이마루)셔츠 제조업체가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웨터 7.1%, 여성바지 6.9%, 데님 4.5% 순이다. 니트(다이마루)셔츠 생산지는 성

북구, 중랑구 등 서울 동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스웨터는 중랑구와 강북구, 동대문구에, 데님은 중구에 밀집되어 있다.

여성정장 중에는 수트정장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블라우스 16.6%, 자켓/코트 11.2% 순이다. 수트정장은 주로 중구와 용산구, 동대문구, 종로구에서 생산하며 서울 동북부지역 중 동대문에서 가까운 중구, 종로구는 우븐쪽에, 동대문에서 면 성북구, 중랑구는 니트(다이마루)쪽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의류 중 가죽의류는 중랑구, 광진구에 밀집되어 있는데 특히 광진구 중곡1~3동에 밀집도가 높으며, 내의류는 영등포구 대림3동에 밀집도가 높다. 의류액세서리 중 양말은 도봉구에 서울 전체 양말제조업체 중 81.5%가 밀집되어 있다.

### 3. 의류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동대문 중심)

만성적인 일감부족과 이에 따른 사업규모의 영세화 및 경영악화 등 의류제조업종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치열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30~50% 정도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류패션산업에 있어 의류제조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산업이며 대표적인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도시서민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중요한 업종이다. 또한 패턴작업, 샘플작업, 후가공작업, 마무리작업, 원부자재 및 완성품 배송 등 의류제조업과 연관된 업종종사자수도 굉장히 많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축된 의류제조업종 관련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기반을 다짐과 아울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류제조업 활성화의 최우선순위 정책은 바로 일감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디자이너의 기획력 향상과 마케팅 지원 등 디자인 R&D와, 기획디자인의 패턴·샘플화 및 특수봉제기법 개발 등 기술 R&D의 융합을 통한 다품종 소량 하이퀄리티 상품 개발로 의류패션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화하는 것이다.

의류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시키는 것은 상품기획과 제조, 유통(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의류제조스트림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기에 말처럼 쉽지

는 않다. 비용절감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개성공단 등 저임금국가(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더욱 가속화되어 국내 제조업 일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기획력이 부족한 중저가 의류상품의 단순 주문생산방식이 고착화되어 제조업체의 신기술개발 의지와 동기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의류패션산업의 메카인 동대문상권만 보더라도 판매가를 낮추기에만 급급하여 중국, 베트남 등에서 제조한 의류판매량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잘 팔리는 상품의 디자인 카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모든게 있는 동대문시장에 당연히 있어야 할 없는 2가지가 하나는 ‘디자인’, 또다른 하나는 ‘브랜드’라는 산업연구원 박훈 박사의 말은 그래서 더더욱 실감이 난다.

이러한 난제를 뚫고 의류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류제조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서울의 동대문은 도매상권, 소매상권, 원부자재상권, 의류제조권역 등 4개의 다채로운 섹타가 존재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션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키기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바로 이 곳 동대문에서의 새로운 패션비즈니스 모델은 아래와 같이 디자인과 제조, 마케팅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적절히 변화되고 융합되어야 한다.

첫째로, 디자이너의 기획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트랜드 및 신소재에 대한 정보가 적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획이 실제 상품화되기 위한 패턴개발 및 샘플제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트레이닝스튜디오를 통해 디자이너와 패턴사간의 각 샘플별 기술개발 관련 의견교환과 그 매뉴얼이 만들어져 기술포럼을 통해 전파되어야 하며, 실제 의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구체적인 봉제기술이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마케팅측면에서 이들의 시제품이 실제 오더수주로 연결되기 위해 상설 쇼룸에 전시되고 제품에 대한 상세한 인포메이션 제공과 아울러 트레이드쇼(바잉쇼) 및 컬렉션을 통한 국내외 바이어마케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케팅의 성공요소는 결국 이러한 모든 시설 및 행사의 대내외적 홍보와 바이어들의 호응인데 이를 위해 의류패션 대규모상권과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대문’이라는 지역브랜드화를 어떻게 일구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착될 것이다. 동대문 의류패션 인프라에 대한 상세한 사진설명과 지도를 통해 동대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소개책자 배포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 제작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셋째,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주한 일감은 온전히 Made In Korea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의류제조업체 또는 생산자조합의 공동작업장을 통해 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의류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자금 투입의 당위성이며 명분임과 동시에 창의적인 일감창출과 고용증진이라는 정책목표이기도 하기에 더욱 그렇다. 단순한 일감배분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난이도가 높고 디테일한 작업이 많은 의류제작 기술을 한 단계 높이고 개발기술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앞서 언급한 기술트레이닝스튜디오의 역할과 제조업체간의 소통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류제조업체의 기술개발 동기와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신규 숙련기술자 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

동대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의류패션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2012년 12월에 제정되고 작년부터 본격화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자발적 협업체라는 조직구성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협회’라는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체도 어렵거니와 임원진의 비민주적인 조직운영, 비영리라는 조직목적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소극적 참여 등 많은 문제를 보였었다. ‘계’ 나 ‘회’라는 사적모임은 목적의 모호함과 친목도모라는 감성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조합의 영리 추구라는 합일된 목적을 향해 통일된 행보를 조직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미 작년부터 지금까지 종로구 창신동 중심의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성북구 장위동·월곡동 중심의 ‘서울패션봉제협동조합’, 성북구 보문동 중심의 ‘봉제야 달려라 협동조합’ 등이 생겨 활발한 활동을 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도 의류봉제조합 설립컨설팅 및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대표적인 도시형 기술소공인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안’이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상정중인데 이 법안의 통과와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올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합병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립되고 별도의 기금이 마련되는데 그동안 소상인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을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분리하고 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수기 또는 원부자재 조달시 의류제조업체가 겪는 단기성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금리의 대출상품 개발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한 신용보증 등도 필요할 것이다.

SEOUL ECONOMIC BULLETIN

# 생생리포트

## ■ 「동대문 패션지원센터」 사업추진 방향

김성주(서울디자인재단 패션팀 봉제육성 책임)



# 「동대문 패션지원센터」 사업추진 방향

---

서울디자인재단 패션팀 봉제육성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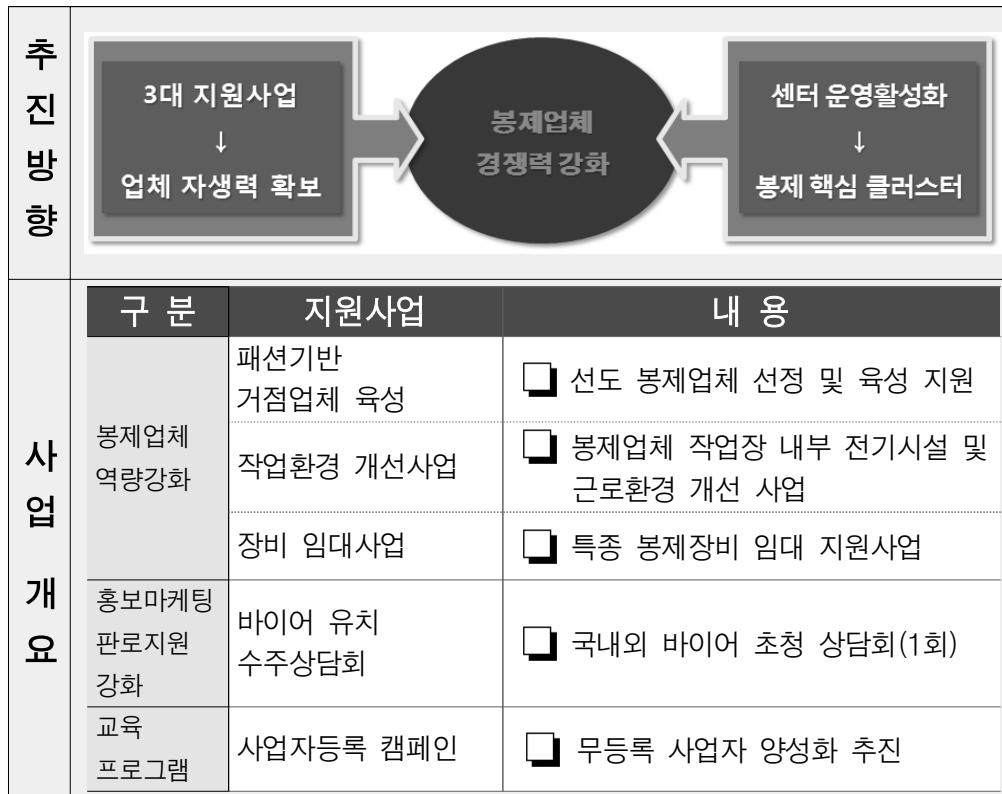
김성주 · lgfkim@seouldesign.or.kr

## I. 사업추진 전략

### II. 세부 사업

1. 봉제업체 역량 강화
2. 홍보 · 마케팅 및 판로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 I. 사업추진 전략



## II. 세부 사업

### 1. 봉제업체 역량 강화

#### 1) 패션기반 거점업체 선정·육성 계획

##### ○ 추진 목적

대다수 봉제업체의 취약한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 등 실질적인 지원 히브 역할을 수행할 발전가능성 있는 봉제업체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을 함으로써 기존 패션지원센터와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봉제산업 내 연쇄적인 성장과 상승효과를 도

모하여 서울을 패션디자인 고품격생산이 가능한 One-Stop 글로벌 패션도시로 정착시켜 고용창출 및 동대문지역의 글로벌 디자인·패션 허브 조성 및 상권 부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함

○ 사업 개요

성장가능성 있는 일정규모 이상 업체를 선정 기준을 근거로 심사위원회에서 120여개 업체 내외 선정 예정.

- 선정기준 : 필수조건과 충분조건(1개 이상) 만족하는 업체

◦ 필수조건: 사업자등록업체

◦ 충분조건: 1년 상시 생산운영 가능 업체, 종업원 규모 5인 이상 업체

지역 봉제업체 지원역량 보유 업체(협력 및 하청업체 3개 이상 연계업체)

## 2) 작업환경 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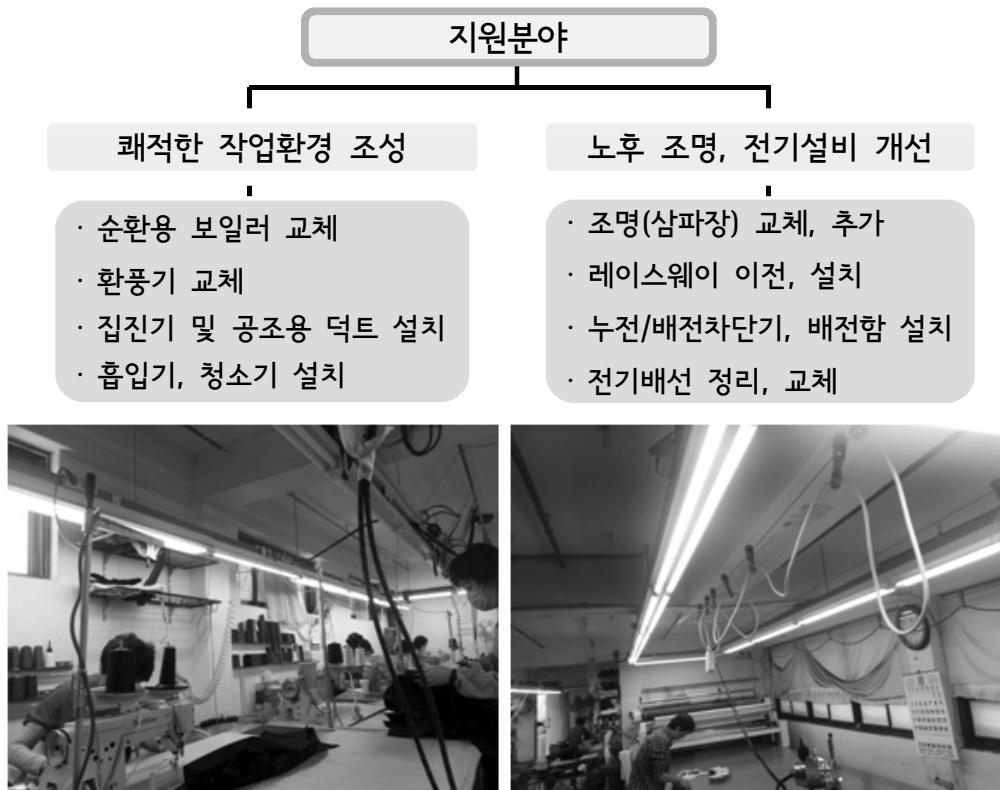
○ 추진 목적

영세봉제업체의 열악한 작업장 내부 환경 및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작업장내의 근로환경개선은 물론,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작업여건을 만들어 봉제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종로구, 중구, 성북구, 용산구, 강북구 등
- 대상자격
  - 2011, 2012, 2013 패션기반거점업체 (기존 수혜업체 제외)
  - 2014년 패션기반 거점업체 지정 예정업체
  - 작업장 면적 150m<sup>2</sup> (전용)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350만원 지원 (부가가치세 별도, 업체 부담 지원금액의 10%)

○ 지원 규모 : 80여개 업체 내외



### 3) 봉제장비 임대사업

#### ○ 추진 목적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 봉제업체의 설비투자 부담 감소 및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처할 수 있는 작업대응력 향상, 품질개선 및 생산량 증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특종 및 신종 장비 임대지원

#### ○ 사업 개요

- 대상자격 : 2011, 2012, 2013년 거점업체
- 2014년 패션기반 거점업체 지정 예정업체 포함
- 임대비용 : 공급가액의 80% 지원, 봉제업체 20% 자기부담

#### ○ 지원 규모 : 700여대 지원 예정

- 지원 장비 : 업체 수요가 높은 일반 및 특종장비 위주로 임대 지원

(1) 본봉사절 재봉기	(2) 각쌍침 사절재봉기	(3) 삼봉사절 재봉기	(4) 인터록 재봉기	(5) 오버록 재봉기	(6) 니hon오바 재봉기	(7) 닥고 재봉기	(8) 단추달이 재봉기
(9) 바텍 재봉기	(10) 니혼바리 재봉기	(11) 칼봉봉 사절재봉기	(12) 날라리 재봉기	(13) 평쌍침사 절재봉기	(14) 큐큐 재봉기	(15) 나나인치 재봉기	(16) 가이루퍼 사절재봉기
(17) 지그재그 미싱	(18) 재단칼 기계	(19) 스쿠이 (루퍼)	(20) 소매달이 미싱	(21) 주름 잡이 미싱	(22) 마루닥고	(23) 오드람프	(24) 호시미싱

- 봉제기계 전문 임대사업자를 의류봉제업체가 직접 선정 및 임대

## 2.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 1) 패션 의류제조 바이어 유치 수주상담회 개최

- 추진 목적

서울 소재 유망 중소 봉제업체의 국내 판로 확대와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구매력이 높은 쇼핑몰 업체, 패션디자인 관련업체와의 수주 상담회를 개최하여 봉제업체의 새로운 일감창출을 지원코자 추진

- 사업 개요

- 개최시기 : 2014. 5 예정
- 참가규모 : 40개사 내외
- 초청바이어 : 300개사 내외 초청 예정



### 3. 교육 프로그램

#### 1) 사업자 등록 캠페인

##### ○ 추진 목적

- 정상적인 사업자 자격 취득을 통한 대외 비즈니스 활성화
-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설명회 개최를 통한 자금난 해소 기대
- 사업자등록을 통한 센터 지원사업 참여 수혜업체 증대
- 사업자등록을 통한 효율적인 봉제업체 실태파악 및 DB 구축

##### ○ 사업 개요

- 추진시기 : 2014년 상·하반기
- 캠페인대상 : 무등록업체, 지역봉제업체 (중구, 종로구, 성북구 중심)
- 장소 : 봉제업체 밀집 지역 등
- 내용 : 사업자등록방법 및 혜택, 관련세무 상담 / 자금지원 종류 등

SEOUL ECONOMIC BULLETIN

# 인포그래픽스

■ 서울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가장 크게 느끼는 요인은?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서울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가장 크게 느끼는 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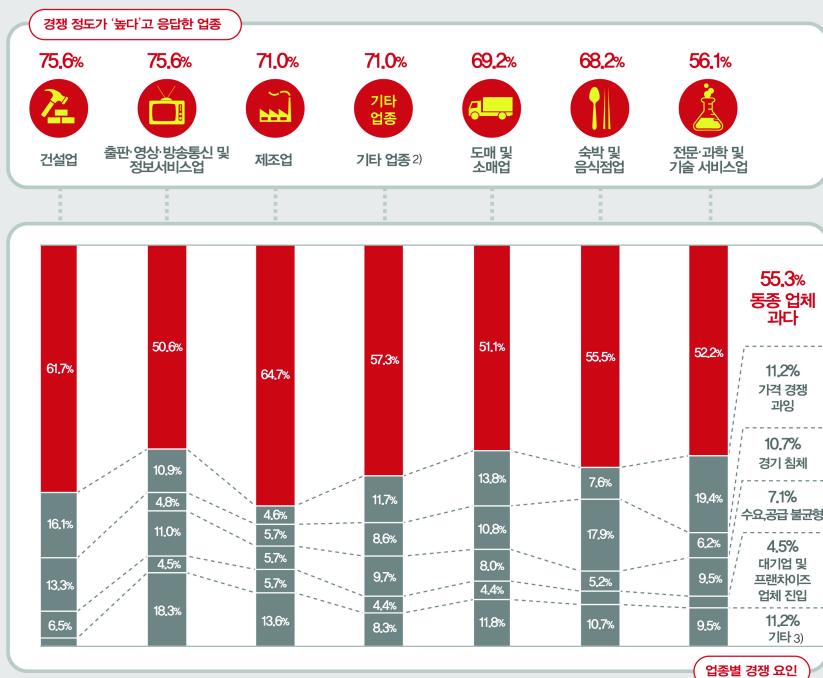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 서울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가장 크게 느끼는 요인은?

'동종 업체 과다'가 55.3%로 전체 경쟁 요인 중 가장 큰 부담 차지



## ‘동종 업체 과다’ 가 55.3%로 전체 경쟁 요인 중 가장 큰 부담 차지

- 서울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경쟁 요인 중 ‘동종 업체 과다’가 55.3%를 차지하며, 모든 업종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낌
  - 2013년 하반기 소기업·소상공인의 최근 1년간 업종 경쟁 정도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동종 업체 과다’가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격 경쟁 과잉’ 11.2%, ‘경기 침체’ 10.7%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64.7%로 ‘동종 업체 과다’ 를 꼽은 비중이 타 업종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중 경쟁 정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며 75.6%가 경쟁정도가 높다고 대답
  - 2013년 하반기 소기업·소상공인의 최근 1년간 업종 경쟁 정도를 살펴보면, 높다(과잉 경쟁상태이다 + 다소 경쟁상태이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69.5%로 조사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쟁 정도가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의 부가 조사로 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연구원 (2013년 3/4분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

**서울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가장 크게 느끼는 요인은?**

**<표 1> 최근 1년간 업종의 경쟁 정도**

(단위: %)

업종	구분	기업수	경쟁상태	보통	경쟁없다 (경쟁이 별로 없다+경쟁이 거의 없다)
			(과잉 경쟁 상태이다+다 소 경쟁 상태이다)		
	전체	1000	69.4	21.2	9.4
	제조업	154	71.0	22.6	6.4
	건설업	45	75.6	20.9	3.4
	도매 및 소매업	430	69.2	21.5	9.3
	숙박 및 음식점업	177	68.2	18.2	13.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	75.6	20.5	3.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3	56.1	34.3	9.6
	기타 <sup>1)</sup>	119	71.0	18.0	11.1

1)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표 2〉 경쟁 정도에 대한 이유

(단위: %)

경쟁 상태	구분	기업수	경쟁 정도에 대한 이유					
			동종 업체 과다	가격 경쟁 과열	경기 침체	수요, 공급 불균형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업체 진입	기타
경쟁 상태	제조업	109	64.7	4.6	5.7	5.7	5.7	13.6
	건설업	34	61.7	16.1	13.3	0.0	6.5	2.4
	도매 및 소매업	297	51.1	13.8	10.8	8.0	4.4	11.8
	숙박 및 음식점업	121	55.5	7.6	17.9	5.2	3.2	10.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4	50.6	10.9	4.8	11.0	4.5	18.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52.2	19.4	6.2	9.5	3.3	9.5
	기타 <sup>2)</sup>	85	57.3	11.7	8.6	9.7	4.4	8.3
	합계	694	55.3	11.2	10.7	7.1	4.5	11.2

2) 내수 시장 침체, 외국산 제품 수입 및 기타 무응답

SEOUL ECONOMIC BULLETIN

# 경제동향

##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응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 요·약 | 11월 서울의 경제동향

### 생 산

- 서울의 1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7.4로 전년동월대비 11.9% 하락
- 11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9.8%, 1.3% 감소하여 경기수축기

### 소 비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4,620억원으로 전국(6조7,352억원)의 36.6%를 차지
- 11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대형마트 판매액은 4.3% 증가

### 고 용

- 서울의 11월 취업자는 515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7천명(2.5%)이 증가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60.6%로 전년동월대비 1.3%p 증가,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 물 가

- 2013년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9(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 부 동 산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북지역(-0.03%) 특히 용산구(-0.86%)와 광진구(-0.11%)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1% 하락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 역시 강남지역(0.80%) 특히 영등포구(1.01%)와 강서구(1.00%)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73% 상승

###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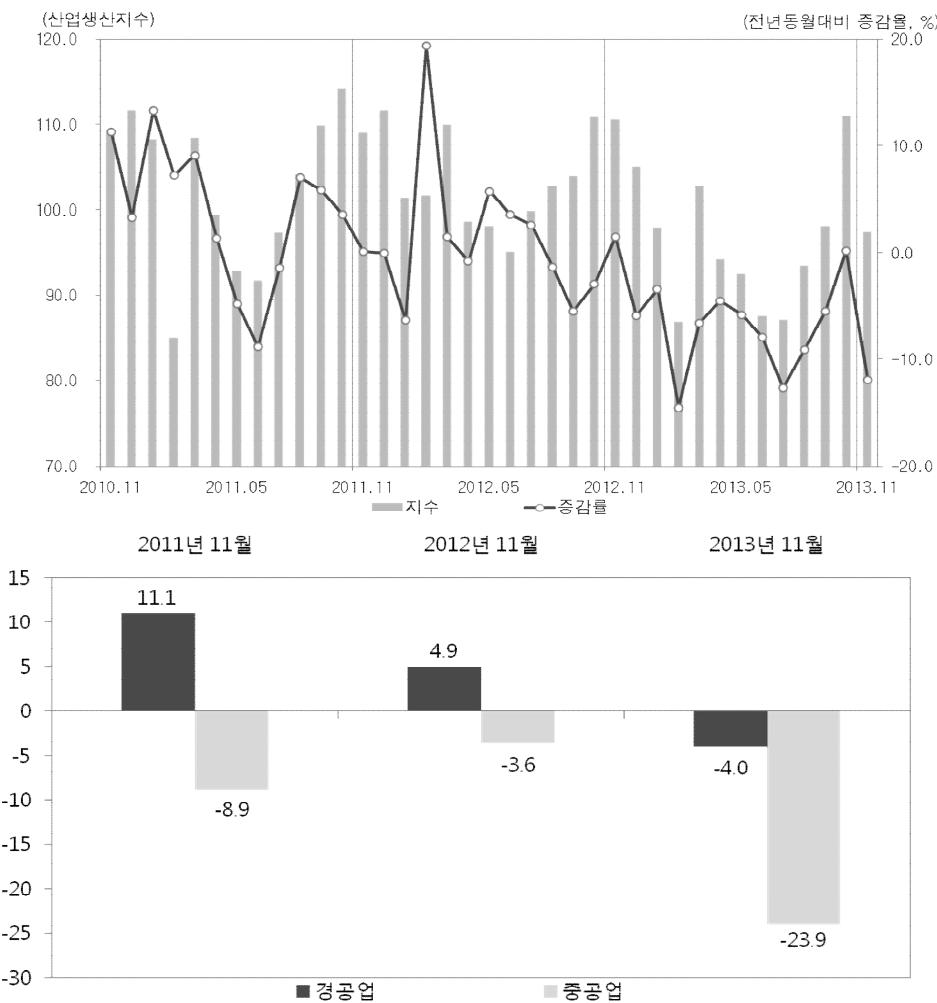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75조 7,659억 원으로 전월대비 0.4% 증가, 그 중 가계대출은 178조 3,605억 원으로 전월대비 0.4% 증가
- 서울의 11월 신설법인수 2,033개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5% 감소
- 서울의 11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8% 증가

### 수 출 입

- 서서울의 11월 수출은 4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3.1%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11월 수입은 11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 생 · 산 |

- 서울의 11월 제조업생산지수 97.4(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11.9% 하락
  - 경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0% 감소, 중공업부문은 23.9% 감소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가죽 및 신발(33.2%), 종이제품(24.4%), 고무 및 플라스 턱(13.2%) 등 증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40.3%), 인쇄 및 기록매체 (-16.3%), 의복 및 모피(-6.8%)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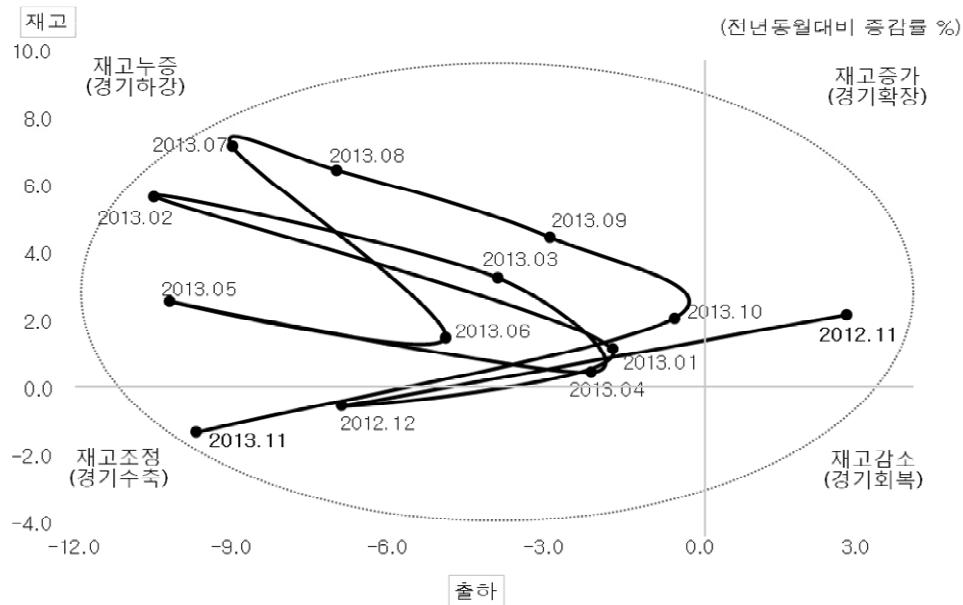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11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감소로 경기수축기
  - 서울의 11월 출하지수는 99.3(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9.8% 감소
  - 서울의 11월 재고지수는 111.5(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1.3% 감소
  - 출하, 재고 감소하여 경기수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 · 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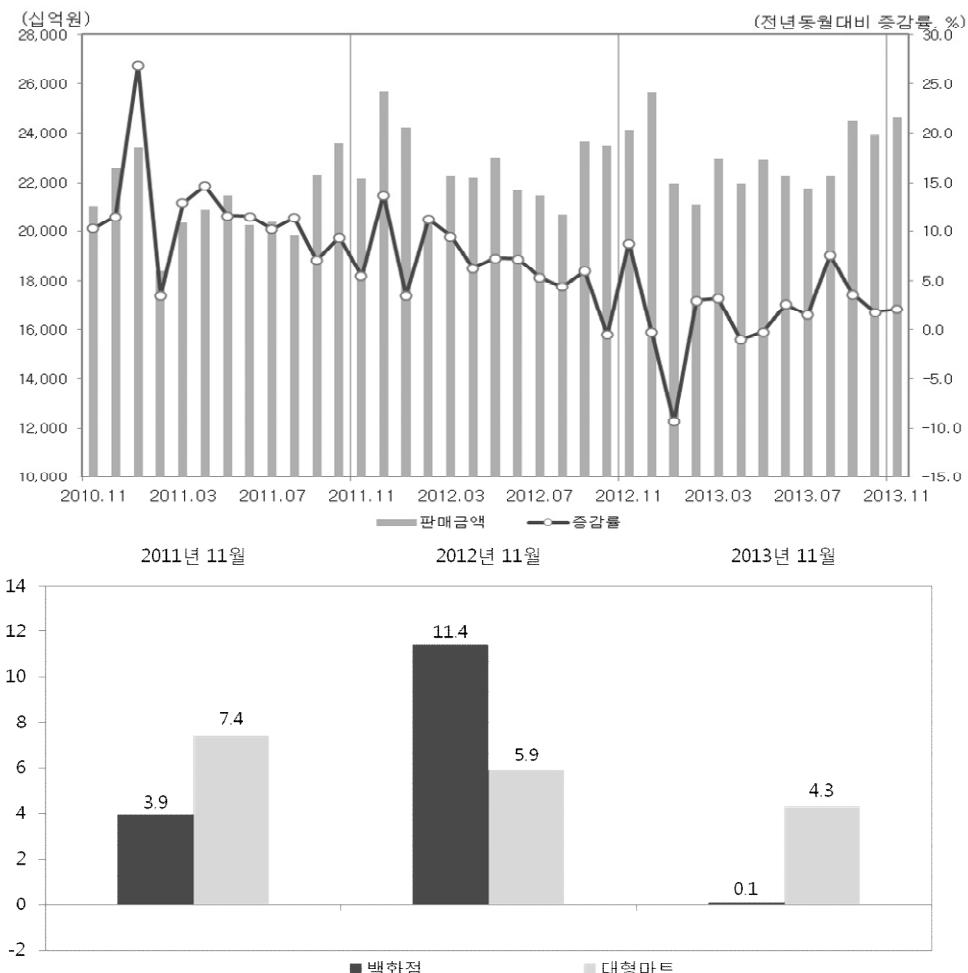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 | 소·비 |

###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4,620억원으로 전국(6조7,352억원)의 36.6%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2,997억원으로 전국(2조9,829억원)의 43.6%,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1,623억원으로 전국(3조7,523억원)의 31.0%를 차지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4.8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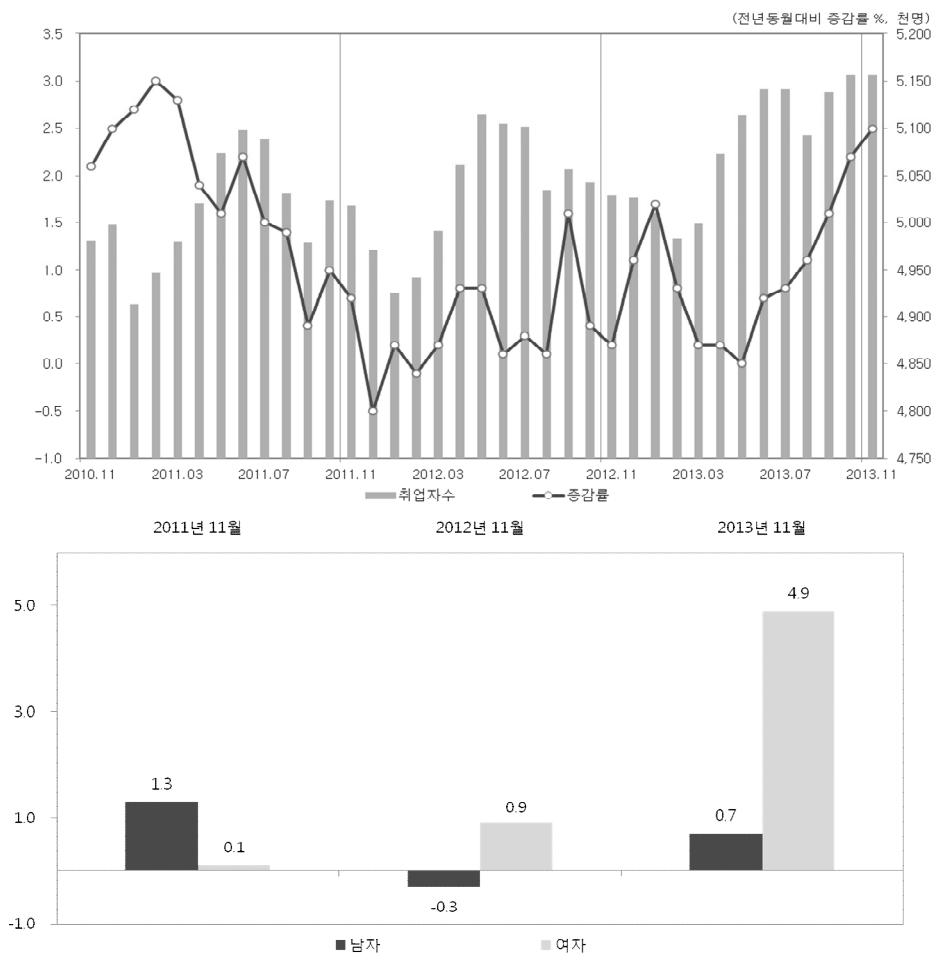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 취 · 업 · 자 |

### ■ 서울의 1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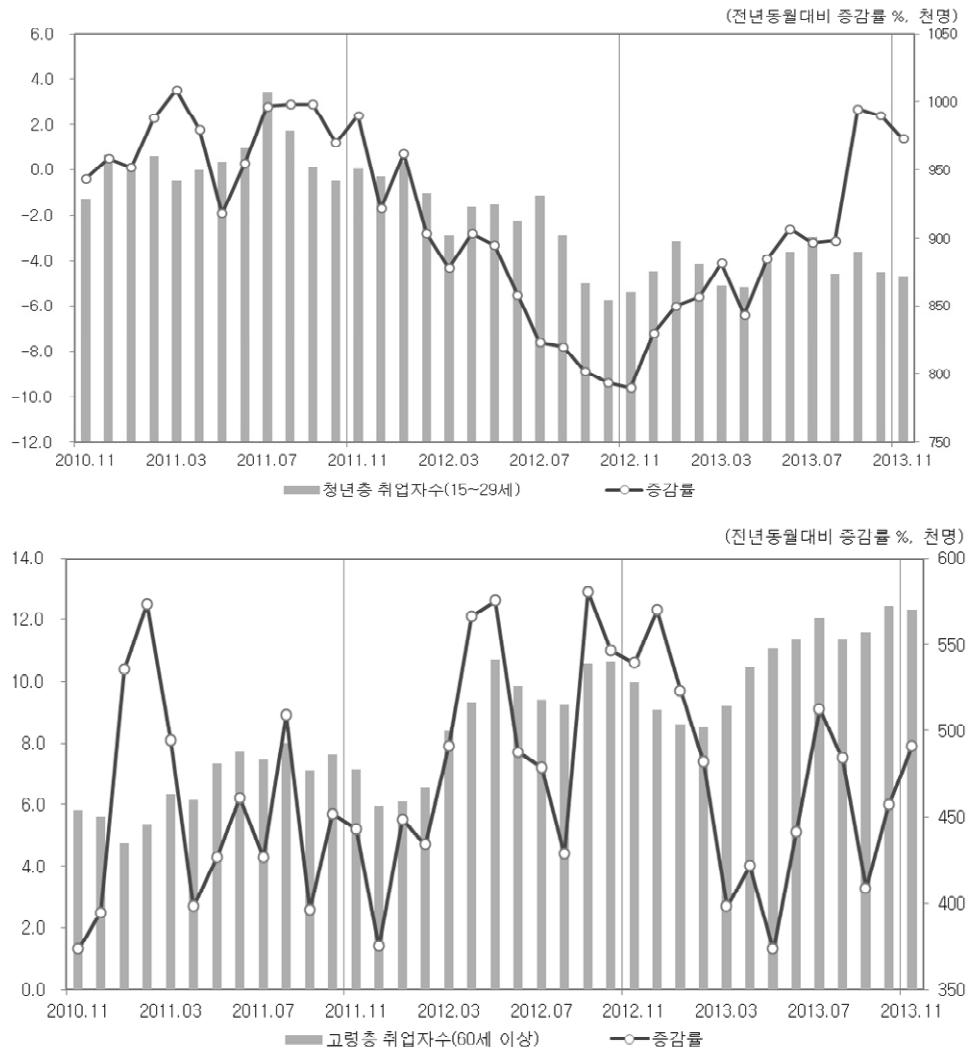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취업자는 515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7천명(2.5%)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7만명, 여자는 228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만명(0.7%), 여자는 10만8천명(4.9%)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6만3천명(4.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7만5천명(3.7%),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5천명(0.6%)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11월 청년층(15세~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 서울의 11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7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하며  
플러스 성장세 3개월 연속 유지
  - 서울의 11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9%로 꾸준한 플  
러스 성장
  - 2013년 11월 고령층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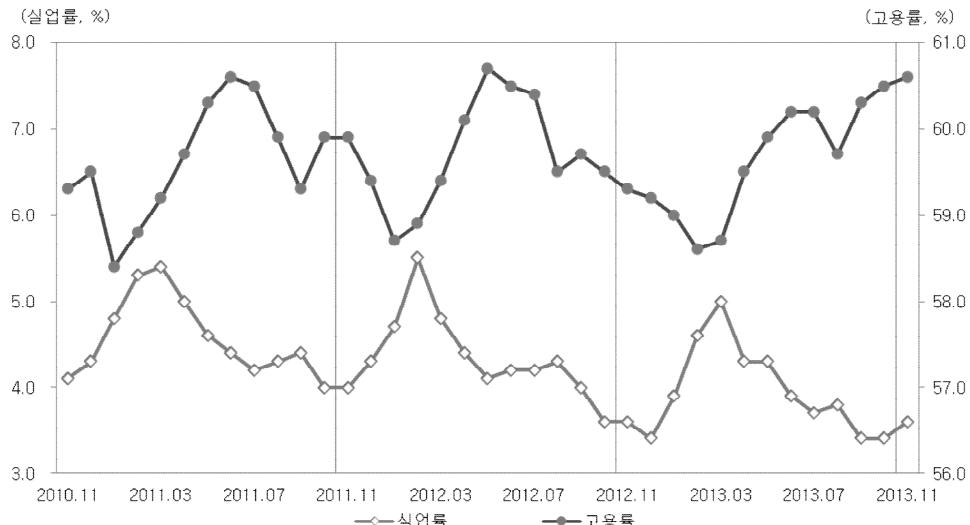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11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동일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60.6%로 전년동월대비 1.3%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3%로 전년동월대비 0.5%p, 여자는 51.65%로 2.1%p 각각 증가
  - 2013년 11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4%)보다 0.2%p 높은 수준
  
- 서울의 1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동일,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1월 실업자는 19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2.0%)이 증가
  -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로 전년동월대비 0.4%p 증가, 여자는 2.7%로 0.5%p 감소
  - 2013년 11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2.7%)에 비하여 0.9%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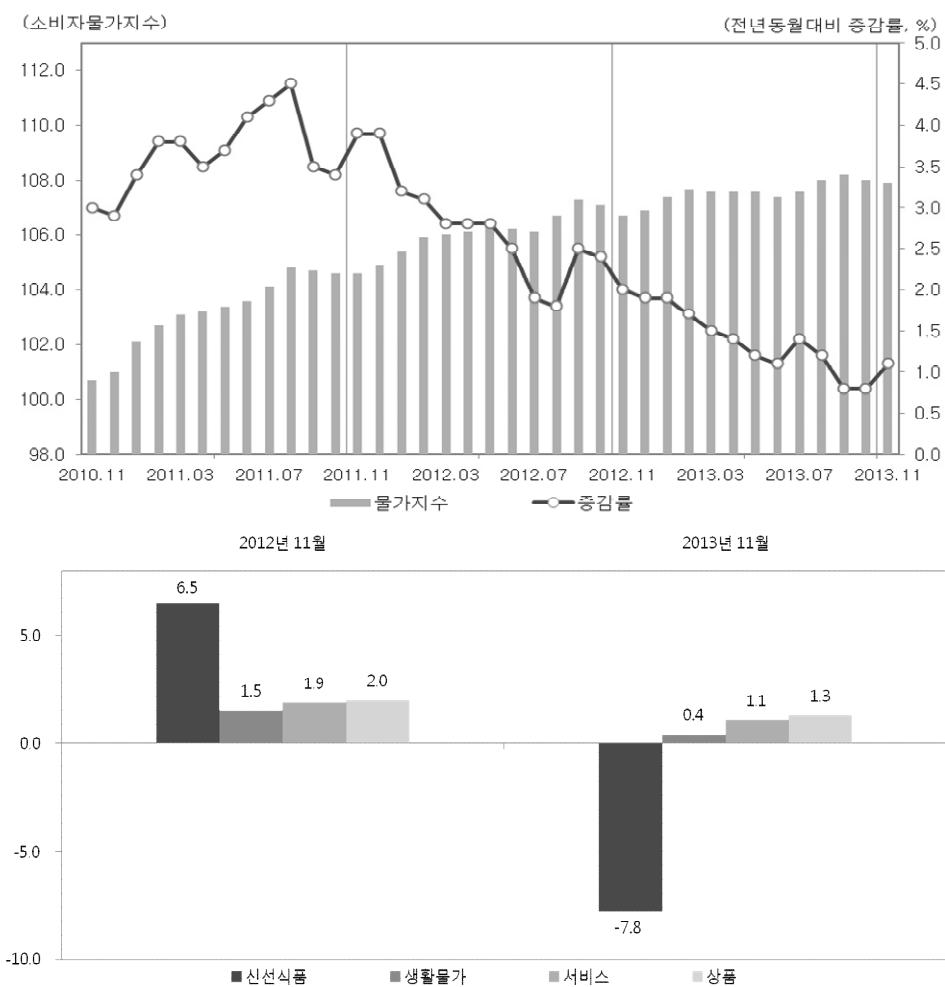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3년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9(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4%), 교통(-0.5%), 오락 및 문화(-1.2%), 주류 및 담배, 보건, 통신, 교육, 기타상품 및 서비스(0.0%)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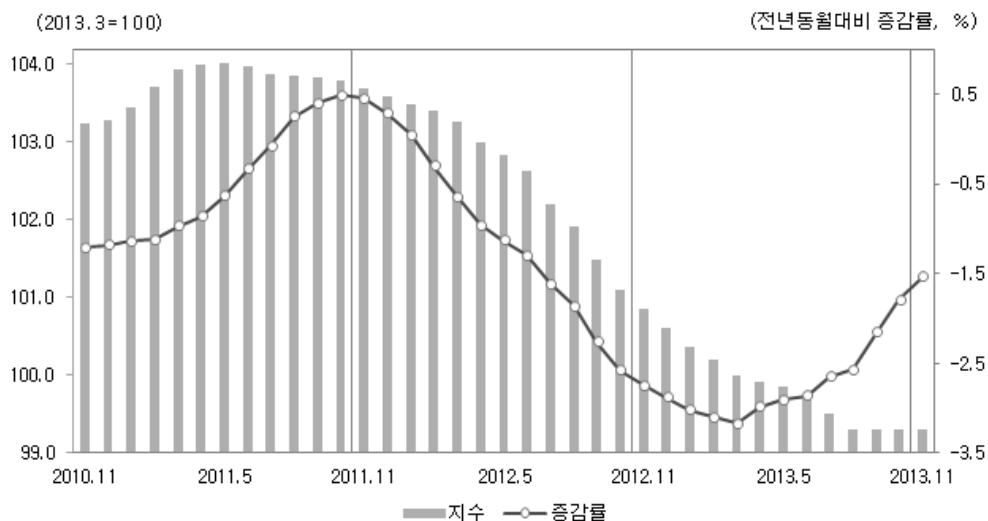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1% 하락
  - 강북지역(-0.03%) 전월대비 하락, 강남지역(0.01%) 전월대비 상승
    - 하락률 상위지역: 용산구(-0.86%), 광진구(-0.11%), 영등포구(-0.10%), 서초구(-0.06%)
  - 아파트(0.01%) 전월대비 상승, 연립주택(-0.03%), 단독주택(-0.04%) 전월대비 하락
- 전국의 1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17% 상승
  - 광역시(0.42%), 기타지방(0.29%), 수도권(0.01%) 모두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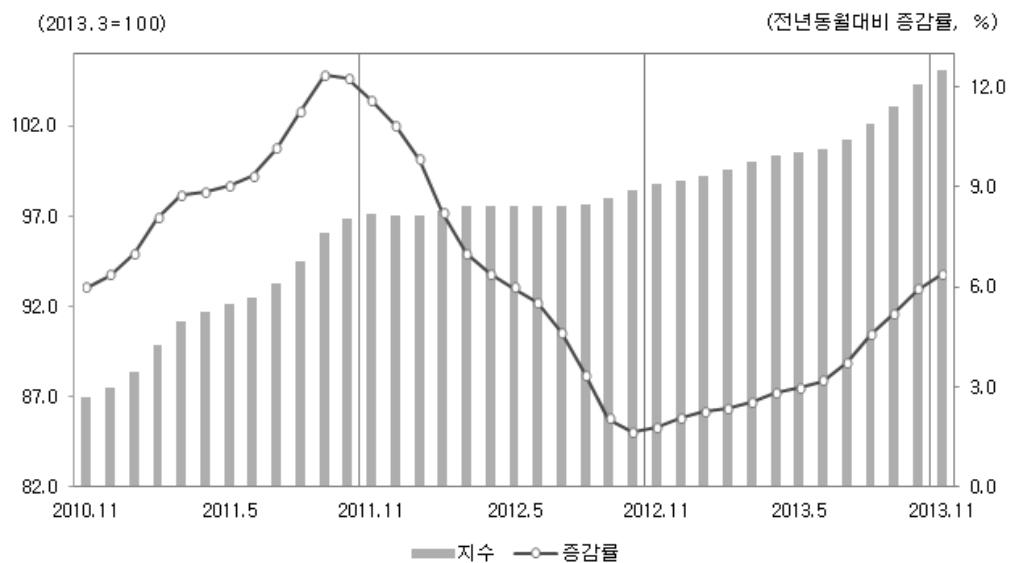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감소,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매매가격(1,626만원)은 전월(1,629만원)대비 0.18% 감소
  - 매매거래건수(6,573건)는 전월(7,571건) 대비 13.2% 감소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73% 상승
  - 강남지역(0.80%), 강북지역(0.66%)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영등포구(1.01%), 강서구(1.00%), 서대문구(0.93%), 중랑구(0.92%)
    - 아파트(1.01%), 연립주택(0.36), 단독주택(0.34%)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1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65% 상승
  - 수도권(0.80%), 광역시(0.48%), 기타지방(0.42%) 모두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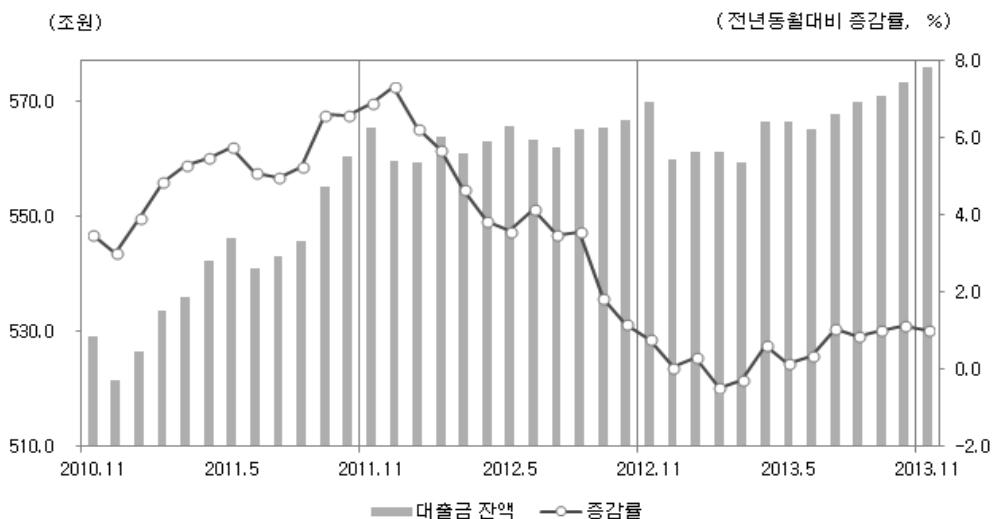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전세가격(평균 961만원)은 전월(946만원)대비 1.6% 증가
  - 전세거래건수(6,870)는 전월(8,083건) 대비 15.0% 감소

## | 가 · 계 · 대 · 출 |

- 1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75조 7,659억원)은 전월(573조 2,381억원)대비 0.44%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68조 9,628억원)과 비예금은행(106조 8,031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9% 증가, 2.8% 감소
  
- 11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520조 881억원)은 전월(1,509조 2,840억원)대비 0.7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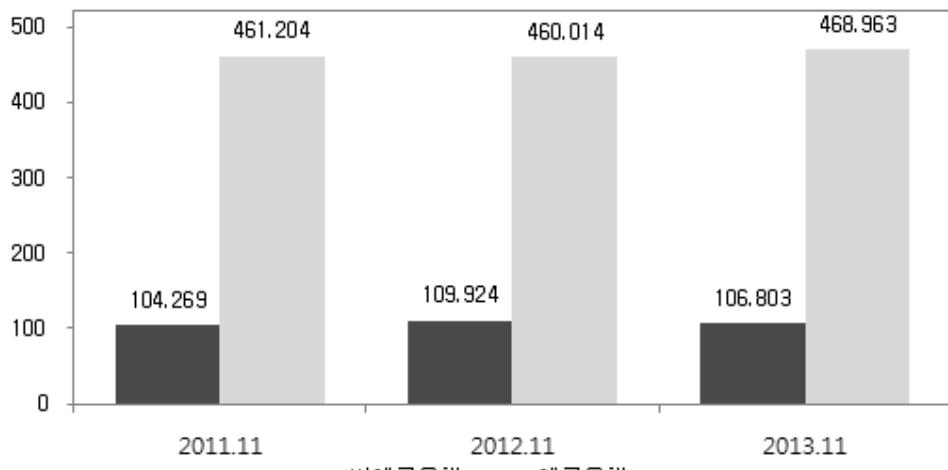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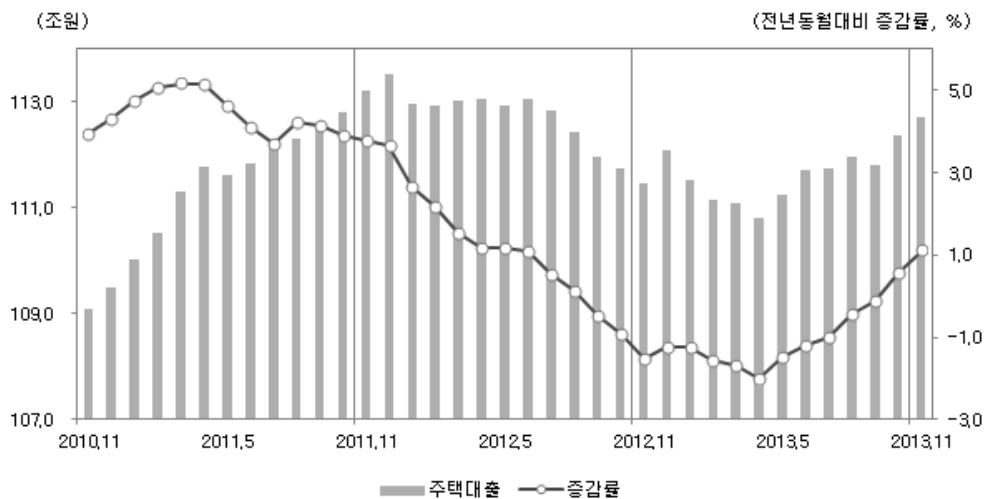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lt;그림&gt;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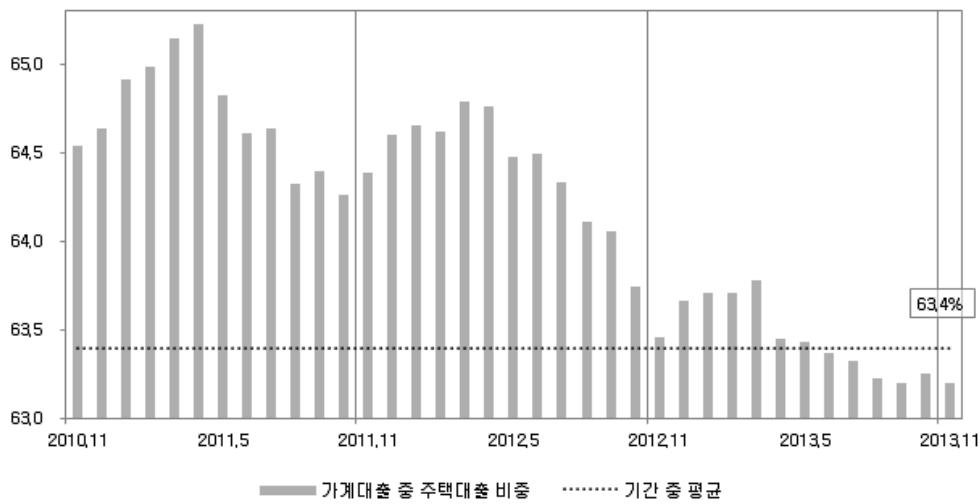
■ 1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 은행 가계대출(178조 3,605억원)은 전월(177조 6,358억원)대비 0.4%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12조 7,163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lt;그림&gt;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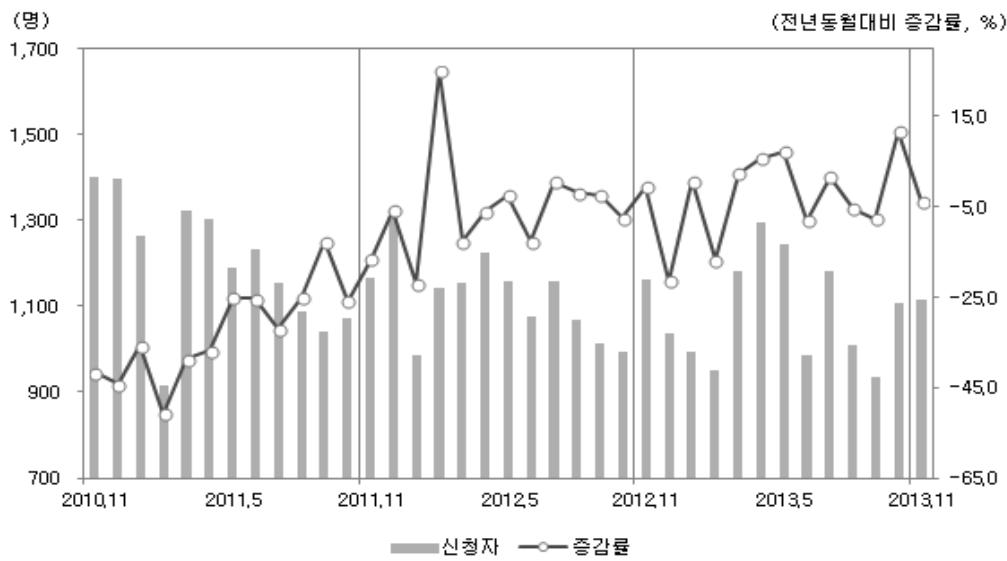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lt;그림&gt;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 1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개인파산 신청자(1,115명)은 전월대비 0.5% 증가, 전년동월대비 4.0%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6.9%)은 전년동월대비 53.8%p 감소, 면책 기각률(4.6%)은 전년동월대비 55.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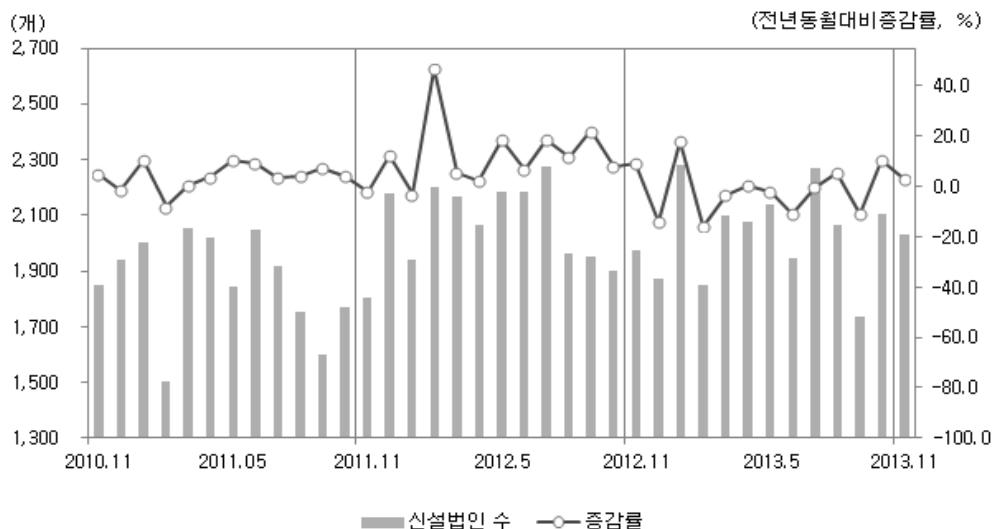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lt;그림&gt;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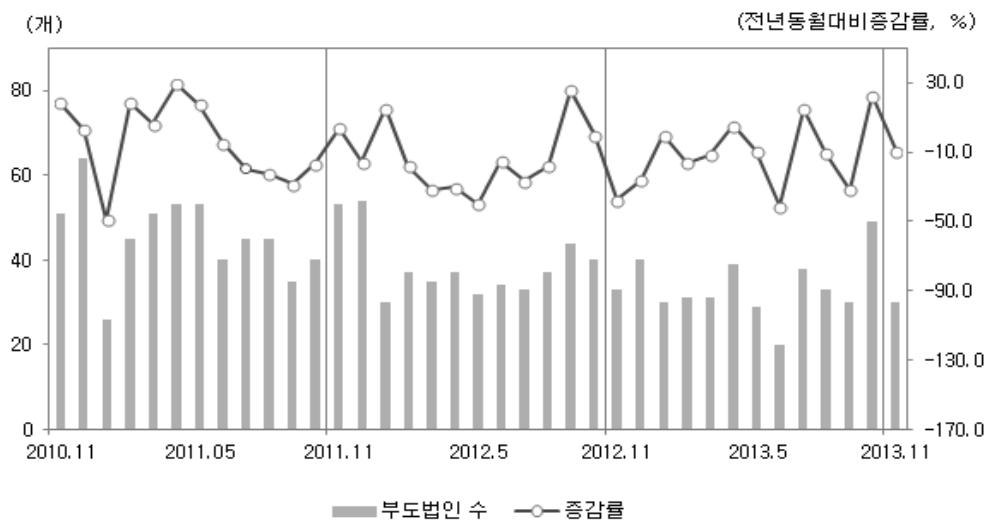
## | 신·설·및·부·도·법·인 |

- 서울의 11월 신설법인 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33개로 전월대비 3.5%(73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3.1%(61개)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보합,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전월대비 각각 3.9%(66개), 0.4%(1개) 감소
  
- 서울의 11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0개로 전월대비 38.8%(19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9.1%(3개) 감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각각 31.8%(7개), 37.5%(6개), 37.5%(4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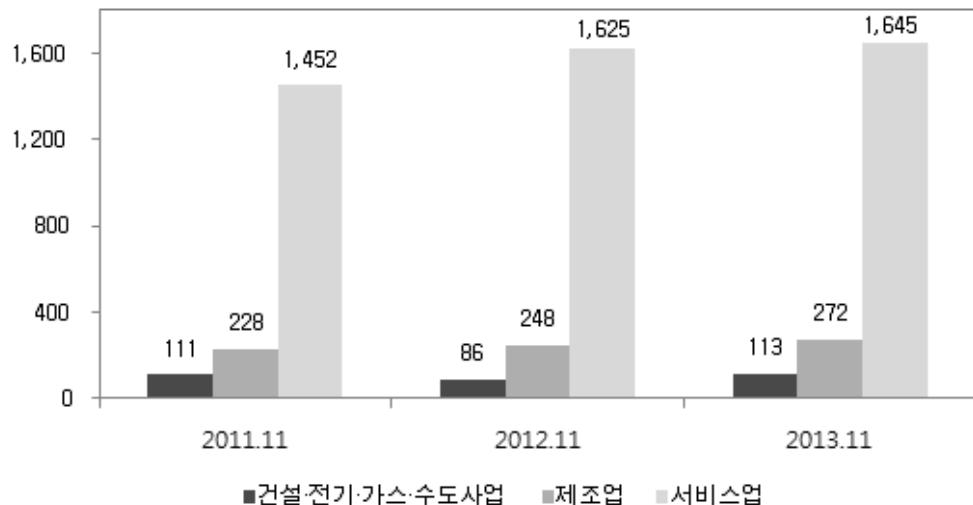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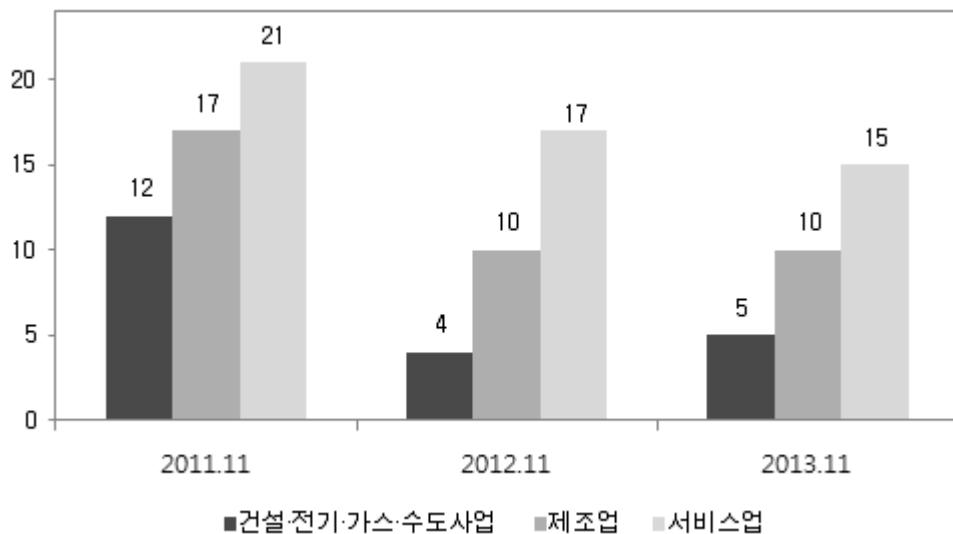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lt;그림&gt;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lt;그림&gt;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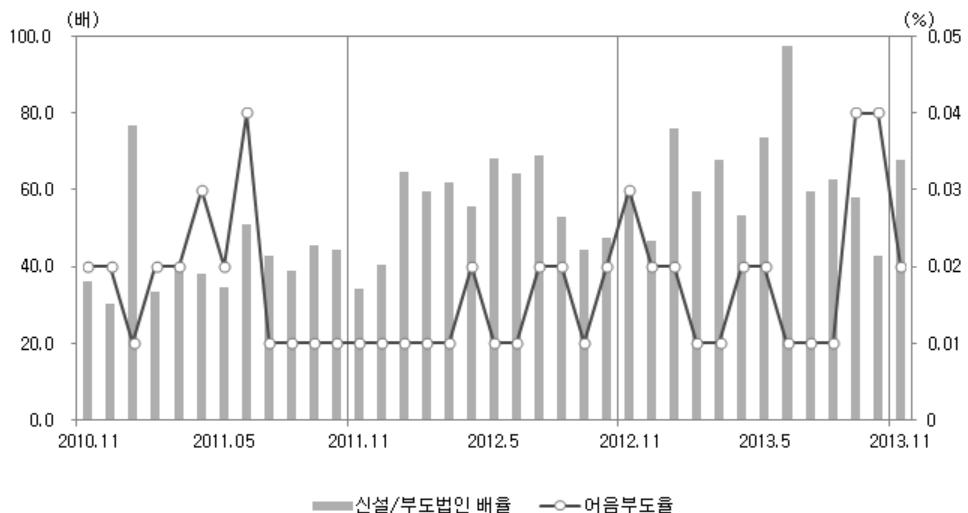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lt;그림&gt;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11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7.8배로 전월(43.0배)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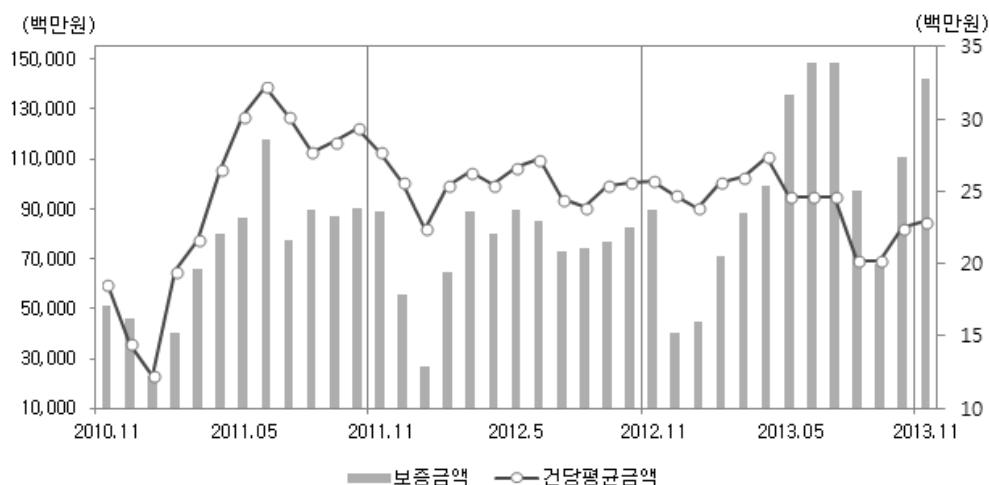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lt;그림&gt;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 ■ 서울의 11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42,326백만원, 6,210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28.8%, 26.4% 증가,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8%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59.1%, 78.6%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1.0%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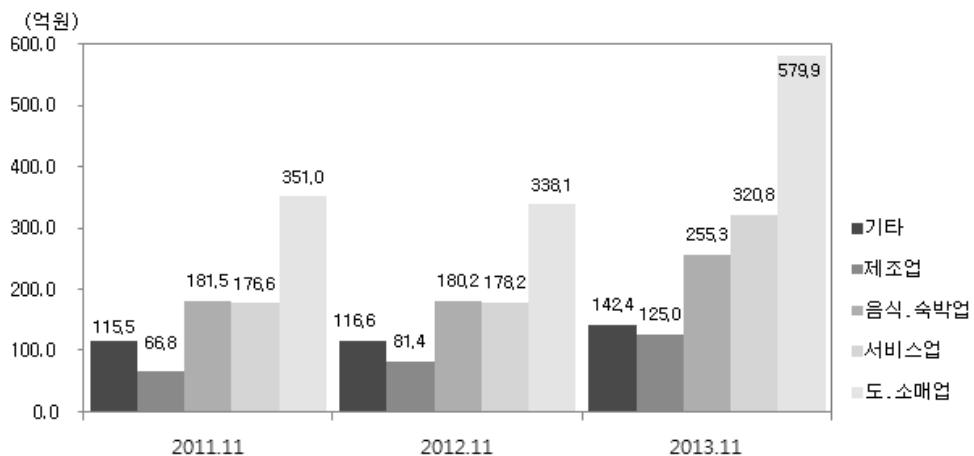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 서울의 11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감소

- 11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8%로 전월(9.7%) 대비 0.9%p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40.7%로 전월(36.7%) 대비 4.0%p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3%로 전월(8.0%) 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7.7%로 전월(36.0%) 대비 1.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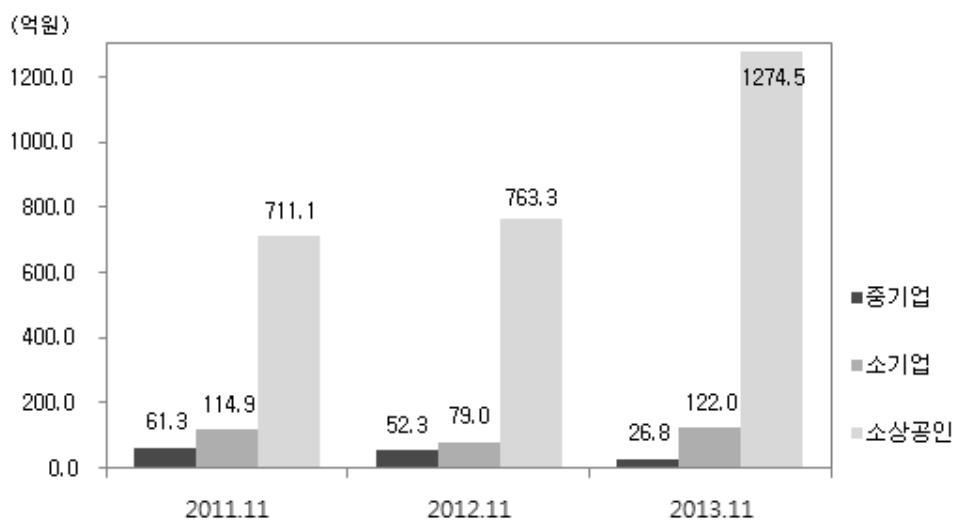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9.5%로 전월대비 2.1%p 증가 하였고 건수기준 96.2%로 전월대비 0.7%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6%로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3.1%로 전월대비 0.2%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9%로 전월대비 2.2%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0.7%로 전월대비 0.9%p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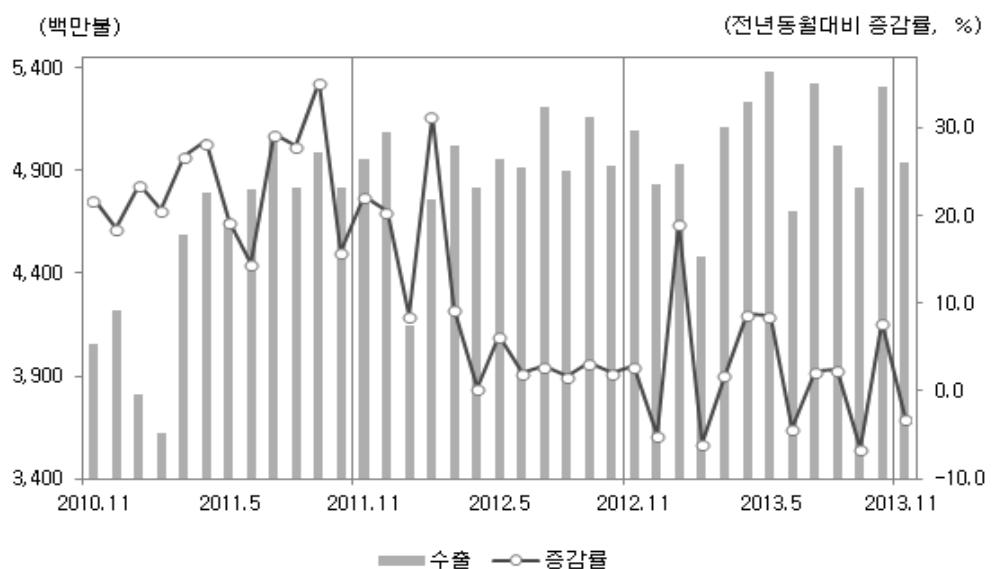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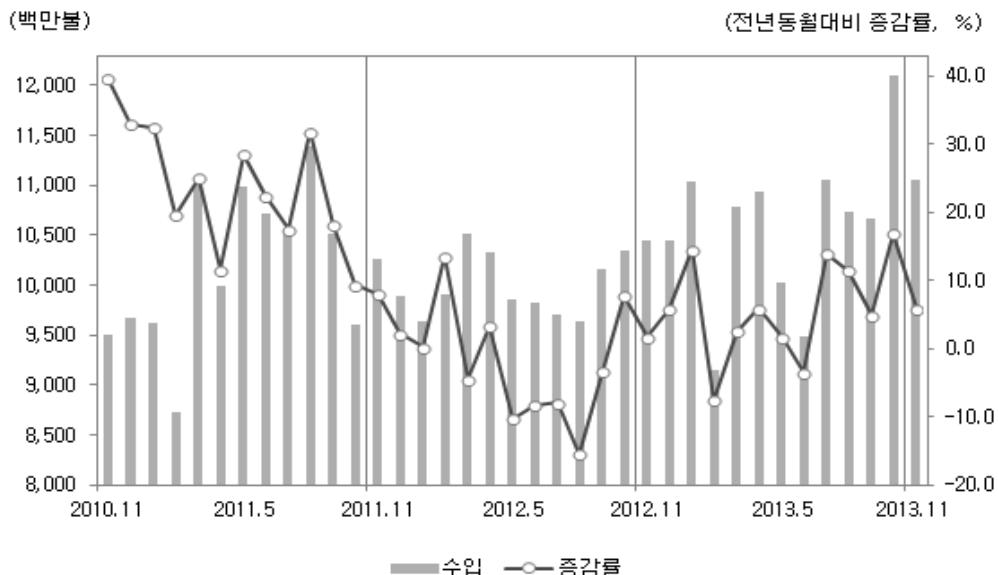
## | 수 · 출 · 입 |

- 서울의 11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9.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1% 감소하였고 수입은 110.6 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78.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고 수입은 431.0 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서울의 11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 부품,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이 494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78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 의류, 컴퓨터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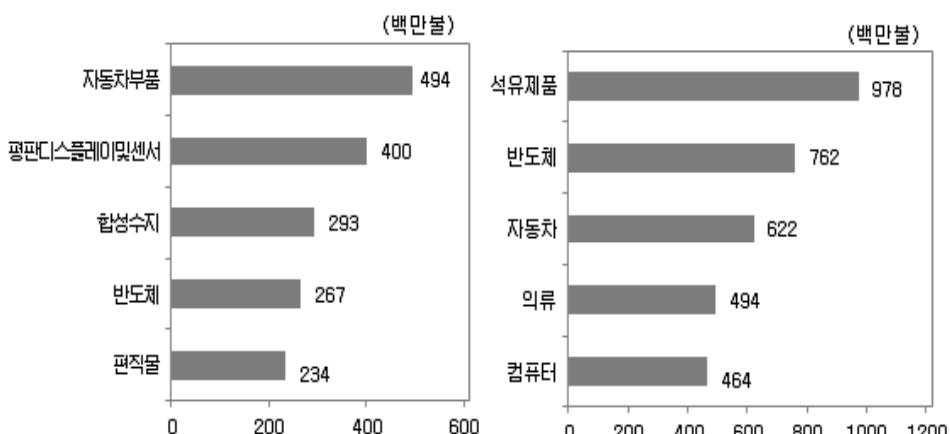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lt;그림&gt;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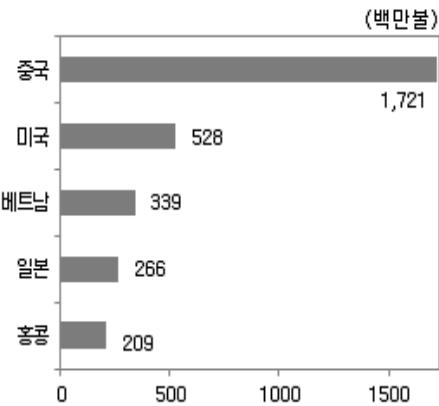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lt;그림&gt;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lt;그림&gt;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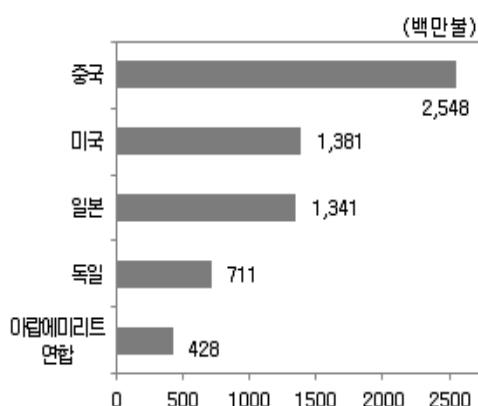
### ■ 서울의 11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한 1,721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한 2,548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아랍에미리트 연합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11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11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3년 11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3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3년 11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3년 11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iba.go.kr>」

통계청, 「201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3년 11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3년 1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